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세상 만민이 살게 되어 있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구세주와 똑같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고 그랬죠? 구세주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반대생활을 100%했다고 그랬죠? 반대생활을 100%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전도를 했어요. 이긴자가 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이지 전도를 안 하면 구원이 안 돼요.

구세주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들 때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뒤통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세주의 분신이 인간 속에 들어가 지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유율법을 어기고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하면 구세주가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 도로 툭 튀어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그 영이 강해지고 전도를 해야 이긴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영이 강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도를 할 때에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 영과 싸워서 그 마귀 영을 이겨야 전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매일 지는 실패자인 고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이긴자가 되고 영이 점점 강해져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고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날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

가 봤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포기하는 건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려면 영이 강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매일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긴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고로 그 사람은 결국 죽어서 지옥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긴자가 반드시 되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과학적이면서 이치에 맞는 말만 하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안 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 마음 속에 하늘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가 구축이 될 때에 구세주의 영이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요리, 조리 핑계 대고 전도를 못 해오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의 영생을 포기하는 거나 같아요. 아시겠어요?

전도하는 걸 포기하는 건 영생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해서 열 사람 이상 전도하게 되면 순종한 거나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천당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 그러므로 노력하고 힘만 쓰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힘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쓰여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 사람 이상만 전도



구세주 조희성님

를 하게 되면 그는 왕의 반열에 서게 되면서 순종 했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라고 했을 때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진리를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알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가는 빛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천당 갈 마음만 먹는다고 되겠어요? 책임유록 가사총론을 보면 삼년 동안 흥년 들고 그 다음에 이년 동안 괴질이 돈다는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해마다 장마를 못 지게하고 해마다 풍년 들게 했었는데 갑자기 흥년 들기 시작한다 하면 때가 임박한 거죠? 그러므로 3년간 흥년 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2년간 괴질이 돈다는 죽을병이 돈다고 그랬죠? 그 병은 피가 응고되는 병이고 피가 끈적하게 응고되니까 피의 유통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피의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고로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아침에 걸렸다면 저녁이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이 많이 죽는 고로 갖다가 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판에 시체를 갖다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산더미 같이 쌓인다고 책임유록에 쓰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열 가구 중 아홉 가구가 죽고 한 가구만 산다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60억 인구 가운데 54억만 명이 다 죽고 6억 인지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유록에는 병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쫓아오는 고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입김을 불어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입김을 불어대면 그 병이 낫는 고로 전 세계 만민이 다 몰려오겠지요? 전 세계 만민이 몰려오는 고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일일이 직접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 고로 한강물 에다가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강 물에다가 축복을 하니가 사람들이 큰 배에다가 은금보화를 싣고 와서 이

사람한테 갖다 줘요. 이게 책임유록에 쓰여 있어요. 은금보화를 갖다 주고는 그 빈 배를 몰고 한강으로 가서 한강물을 퍼서 담아가고 그 배들이 각 나라로 가요. 그 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굉장히 비싸질까, 싸질까? 아마 그것 팔 때에 수 억천만금을 받고 팔 거야. 그 물을 마시면 사는데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전깃불이 없어지고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천하 만민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나갈 때에는 민오라고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몰려와서는 살려달라고 하겠지요? 살려달라고 각 나라 말로 쫄리쫄라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 말이 못 알아들어나가 그냥 옆드려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거야. 그런 일 벌어지기 전에 이 제단에 빨리 빨리 찾아와서 복을 받아야겠지요?

매일 제단에 나와야

책임유록에는 정도령을 아는 사람은 그 병에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정도령을 안다는 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예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른다며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순종 안 할 수 있어?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해마다 풍년 들던 나라가 갑자기 흉년 들기 시작하면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 지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불과 6억만 명, 60억의 십분지 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6천 년간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스리다가 마귀가 멸망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심통 사나운 마귀가 사람을 하나씩 붙잡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병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렸다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제단 매일 나오는 사람은 이 병에 안 걸려요. 그러나 매일 안 나오고 가끔 나오는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살려달라고 정도령한테 오겠지요? 정도령은 불쌍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성미가 있는 고로 살려주겠지요?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들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사람은 그날에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알미우니까 안 살려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냥 쉬어-한다고 해서 은혜가 가는 게 아니야. 은혜 안 가게 쉬어-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매일 안 나오면 큰일 나오. 지금 때가 거의 다 임박하고 있어요.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왜 진작 하나님 구세주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왜 구원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 있죠? 그 마귀를 이겨야만 전도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한다는 건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죠?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 사람 전도해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또 그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하나의 마귀를 이기면 두 번째 마귀도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점 그 능력이 강해져, 약해져?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강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약자는 이 길을 못 간다고 그랬죠? 강자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고로 강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마귀와 더불어 계속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2001년 6월 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 이슬 같은 만나

(지난호에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애굽에서 구해 준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침이 되면 주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나와 아론이 무엇이관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또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광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모세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그렇게 실컷 먹고 나서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알려 주어야.”

모세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진 주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르자 광야 가득히 조그맣고 동그란 서리 같은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만나(manna: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한 사람 앞으로 한 호멜(약 2리터)씩만 거두어 가라고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그 이슬 같은 만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 많이 모으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모으지 않았으나 나중에 달아 보니까 많이 모은 사람도 별로 남지 않았고, 조금밖에 모으지 않은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어느 집이나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밧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떡을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하고 모세가 일러두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내일 아침거리로 남겨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식은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자기 식구가 그날 먹을거리만 아침에 거두어 들었고, 그 나머지는 해가 떠올라 더워지면 녹아 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오자, 사람들은 두 호멜

《6장 40년의 광야생활》

(1) 이슬 같은 만나



만나를 거두다 (Gathering of the Manna, Antonio Tempesta, 1555-1630)

씩, 다른 날의 감질이 되는 만나를 모아 놓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가서 관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울 것은 굶고, 삶은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른날 아침까지 만나로 만든 음식을 남겨두었으나 썩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래째 되는 날, 모세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만나를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날 동안 만나를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

어들이 것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째 되는 날, 만나를 거두어들이려고 들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언제까지나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고, 옛날 되는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래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하고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째 되는 날은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깻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누웨바-(홍해)-바알제몬-수르광야-미라-엘림-살마 어촌-(이드로 마을 서편)-기브르 히타이와-히세롯-(시내산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르비탐-시내산(라오즈산) 동남쪽 신광야에 우거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야훼의 명령입니다. 만나를 한 호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먹어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증거로 자손들에게 보여주

어야 합니다.”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관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 정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안셀라